

# 농업용수 확보용 저수지가 도시민 휴식 공간으로



김양배의 사진으로 본 광주·전남 변화상 <2> 양산동 '양산호수공원' 일원

도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쾌적한 산책코스를 자랑하는 호수공원이 있다.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'양산호수공원'이다. 양산저수지는 1945년 양산동 일대 농경지에 필요

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축조됐다. 면적은 본촌 근린공원 내 약 5만5000㎡이다. 양산저수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1967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, 1975년 본촌일반산업단지 조

성과 양산지구 택지개발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수질이 오염됐다. 주민들은 2010년 10월 양산호수 가꾸기 봉사클럽을 창립하고 환경개선 활동을 펼쳐왔다. 이 단체는 2020년 전남일보사와 광주은행이 공동주최한 '제26회 녹색환경대상'에서 '생활 속 환경실천부문' 대상을 수상했다.

광주시와 북구청은 2010년부터 양산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, 탐방로를 조성하고 주변을 정비해 도시 속 생태문화 복합공간인 '양산호수공원'으로 변모시켰다. 이곳 양산호수공원에서는 봄에는 벚꽃, 여름에는 홍련 등 연꽃,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.



양산호수공원의 2000년(사진 위) 모습과 2025년 현재의 모습. 1 북구문화센터 2 KT&G 광주통합몰류 3 양산초등학교

글·사진=김양배 기자